

2020-2021  
한국-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이슬람 예술 VR 전시

2020.11.18 –  
2021.12.3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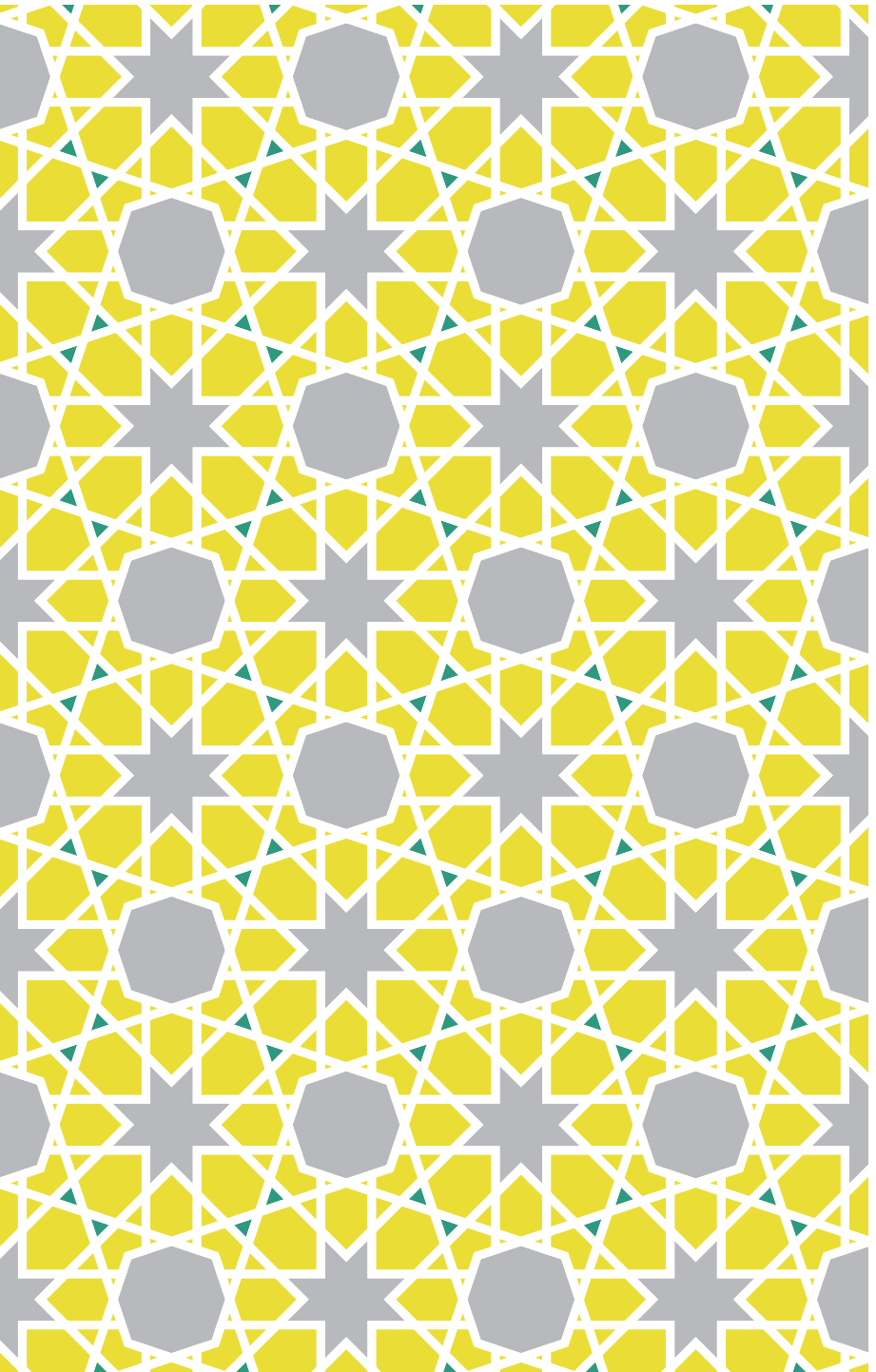
UNITED ARAB EMIRATES  
MINISTRY OF CULTURE & YOUTH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وزارة الثقافة والشبا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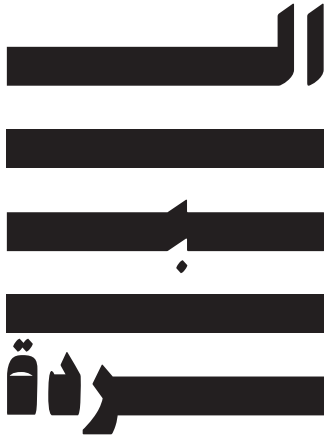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 الحوار  
الثقافي  
الإماراتي - الكوري

CULTURAL DIALOGUE KOREA - UAE

# منحة البردة Al Burda Endowment





## منحة البردة Al Burda Endowment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수교 40주년을 맞아 '2020-2021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이라크 지역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포용하는 등 문화적 다양성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한-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는 아시아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한국과 풍부한 중동 지역의 문화자산을 보유한 아랍에미리트가 음악·미술·무용·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문화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양 국가 간 '문화의 융합(Converging Cultures)'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써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구 문화지식개발부)의 '알 부르다 기금(Al Burda Endowment)' 첫 번째 에디션 VR전시를 국내 관객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알 부르다 기금(Al Burda Endowment)'은 이슬람 예술의 실험적 시도와 재해석을 장려하는 선구적 이니셔티브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10명의 현대 예술 아티스트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이슬람 예술작품을 제작하였다. <알 부르다 기금(Al Burda Endowment): 이슬람 예술 VR 전시>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마나랏 알 사디얏에서 열린 <2019 아부다비 아트페어>에 처음 전시되었고 현재 VR온라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세부정보는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홈페이지([www.burda.ae](http://www.burda.ae))에서 확인 가능하다.

---

### 문화의 융합 Converging Cultures

한-UAE 상호문화교류의 해 표어로 양국의 문화가 융합돼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

# Ebtisam Abdulaziz

## 에빗삼 압둘아지즈

다영역(Multidisciplinary) 예술가, 아랍에미리트

〈초점 환상〉 작품은 관객이 앞뒤, 좌우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여 관객과 소통하고, 시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대안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작가의 이전 2차원적 작업에서 출발한 〈초점 환상〉은 여러 레이어를 사용한 이슬람 기하학을 테마로 사용한다. 건축학적으로 작품은 원근감뿐 아니라 빛과 어둠, 가시성과 비가시성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구성되었다.

작품의 구성과 다양한 요소의 반복은 이슬람 기하학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반면, 색채의 조합은 전환의 순간,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이동을 포함하는 전환을 표현한다. 시각적으로 작품은 모스크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수학적 패턴의 별집 모양 구조물 무하르나스를 연상시킨다.



초점 환상 Focal Illusion

2019, 나무 페인팅, 144.78×172.8×7.62cm

# Ammar Al Attar

## 아마 알 아타르

혼합매체(Mixed media) 예술가, 아랍에미리트

이 가상현실 설치작품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신일을 축하하는 말리드(마울리드)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오랫동안 종교적인 이슈로 금지되었던 말리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지만, <말리드 VR>작품은 아랍에미리트 '관용의 해' 기간에 제작되어, 최근 이 전통에 대한 수용력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매우 영적이고 격정적인 말리드는 다른 이슬람 의식절차와 달리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적인 행사다. 아부다비의 오래된 마즐리스\*에서 촬영된 작품은 정통 공연단의 에너지와 소리를 포착하기 위해 얼굴과 손으로 표현되는 신체적 제스처에 중점을 둔다. VR 설치물과 함께 실제 말리드 사진 세 장을 전시해 당시의 역동적인 순간을 관객과 공유한다.

### 마즐리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지역의 사건과 현안에 대해 의논하거나 새로운 소식을 교환하고 손님을 접대하거나 사귀면서 여흥을 즐기는 '앉는 공간'을 의미의 문화사회적 공간.

### 말리드 Malid, 말리드 Malid 1, 2, 3

2019, 아카이벌 잉크젯 사진 인쇄 77x60cm, 말리드 VR/  
하산 키야니(Hassan Kiyani)의 360도 비디오 몽타주와  
VR 헤드셋



# Dana Awartani

## 다나 아와테니

동시대 이슬람 미술가, 팔레스타인/사우디아라비아

작품의 특징은 지속 가능성과 문화적 파괴이다. 작품에 사용된 직물은 케랄라(인도남부의 주)에서 생산되었고, 천연 허브와 향신료는 남아시아와 아랍 문화에서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작품 제작과정은 생태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져 식민주의 유산에 대한 저항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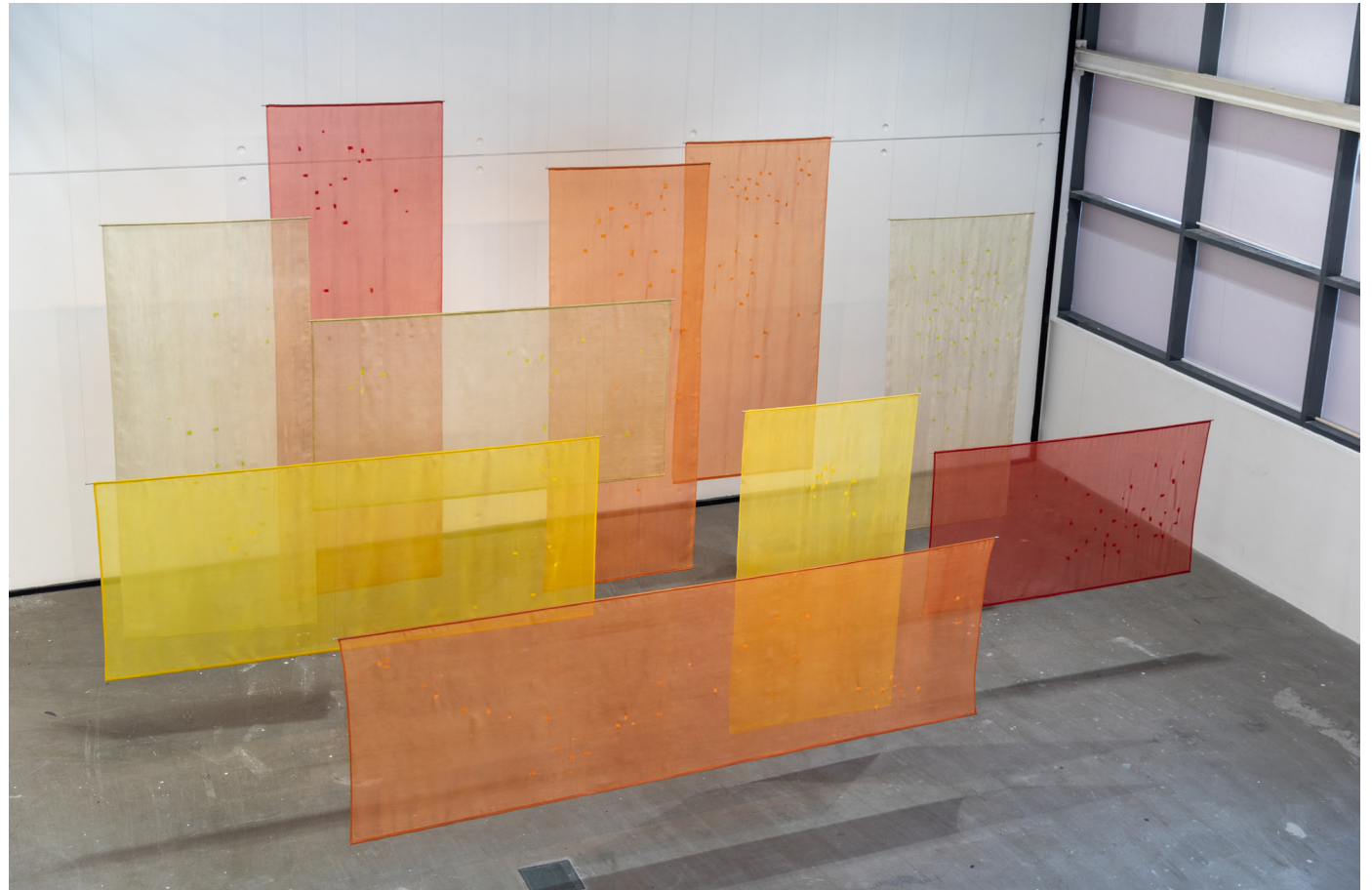
인도를 점령했던 영국은 산업화에 열중했다. 작가는 지역 수공업체와 직접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착취적 유산에 저항한다. 작품에 사용된 직물을 만드는 데 약 50개의 허브와 향신료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오랜 세월 집약된 지식이자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직물을 찢고 구멍을 내어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가 문화적 파괴를 저지른 7개 아랍국가(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리비아, 이라크, 이집트, 예멘)를 표시한다. 그리고 다닝기법을 이용하여 구멍을 꿰맨다.

각 실크 패널이 지리적으로 상응하지는 않지만, 파괴된 문화 유산을 국경의 구분없이 표현한다. 지속적인 파괴와 대형 산업이 초래하는 환경오염에 대항하는 이 작품은 아랍 세계의 고대 문명을 보호하기 위한 탄원이자, 집단적 장인정신의 역사를 되살려 약용식물에 관한 지식과 사물을 보수하고 유서깊은 전통을 즐기고자 하는 노력이다.

오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게요. 여기 서서 애도하며  
당신의 부러진 뼈를 고칠게요

Come, let me Heal Your Wounds. Let me Mend Your  
Broken Bones, as we Stand Here Mourning

2019, 약용 염색 실크에 다닝기법, 630×720×300cm



# Khalid Al Banna

## 칼리드 알 바나

동시대 미술가, 아랍에미리트

작가는 급속도로 진화하는 소비주의 시대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통이 어떻게 변화하고 희석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 직물을 사용한다. 남아시아에서 공급된 직물은 자수, 크리스탈, 구슬, 거울 등으로 장식되며 여성이 특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착용하던 전통 의상이다. 이 직물을 찢는 과정에서 작가는 정체성과 유산의 변질을 다룬다.

작가는 아랍에미리트 문화와 이슬람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슬람 예술과 기하학적 요소를 채택한다. 직조된 꽃 무늬 패턴은 이슬람세밀화, 건축, 기타 예술 형태에서 볼 수 있는 무늬를 연상시킨다. 이 모티브의 반복은 이슬람 예술의 다중성 개념을 상기시킨다. 작품의 복잡한 프레임은 이슬람 기하학과 건축 원칙을 따르며, 단순한 배경과 화려한 패턴의 구성은 이슬람 전통장식의 조화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두 요소는 상호의존적이며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 이슬람세밀화

이슬람 회화의 대표적 화법으로 양피지, 카드, 금속상아 등에 그린 작고 섬세한 그림을 의미



### 움직임의 역학 Dynamic of Motion

2019, 나무에 천, 페인트, 폴로 혼합 매체 고정, 200cm

# Nasser Al Salem

## 나세르 알 살렘

예술가, 캘리그래퍼, 사우디아라비아

눈이 보지 못한 것 What No Eye Has Seen

2019, 나무, 초록색 페인트, 비닐 - 3W×4D×3.3Hm

2015-2016년에 처음 설치된 이 작품은 흰 종이에 흰색 잉크로 예언자 무하마드의 하디스(말씀)를 적어 천국을 묘사했다. “나는 내 의로운 종들을 위해 눈이 보지 못한 것, 귀가 듣지 못한 것, 인간의 심장에 위협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당시의 작품이 하디스(말씀)를 묵상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고 느꼈고, ‘녹색 방’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이 작품은 캘리그래피와 조각으로 구성되며, 경험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녹색 배경에 빛나는 하디스(말씀)를 제외하면 이 공간에는 어떠한 이미지도 없다. 이는 영화에서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크로마 스튜디오 또는 녹색 스크린과 비슷하다.

이 작품은 관객에게 기존 천국의 이미지를 떨쳐낼 것을 요구한다. 무한대의 감각이 이 공간의 특징이다. 방의 규모는 가시적으로 느낄 수 없고,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 관객이 걸으며 상상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하디스(말씀)를 표현했다. 본질적으로 <눈이 보지 못한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낙원은 어떻게 생겼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 Zoulikha Bouabdellah

## 줄리카 부압델라

동시대 미술가, 알제리/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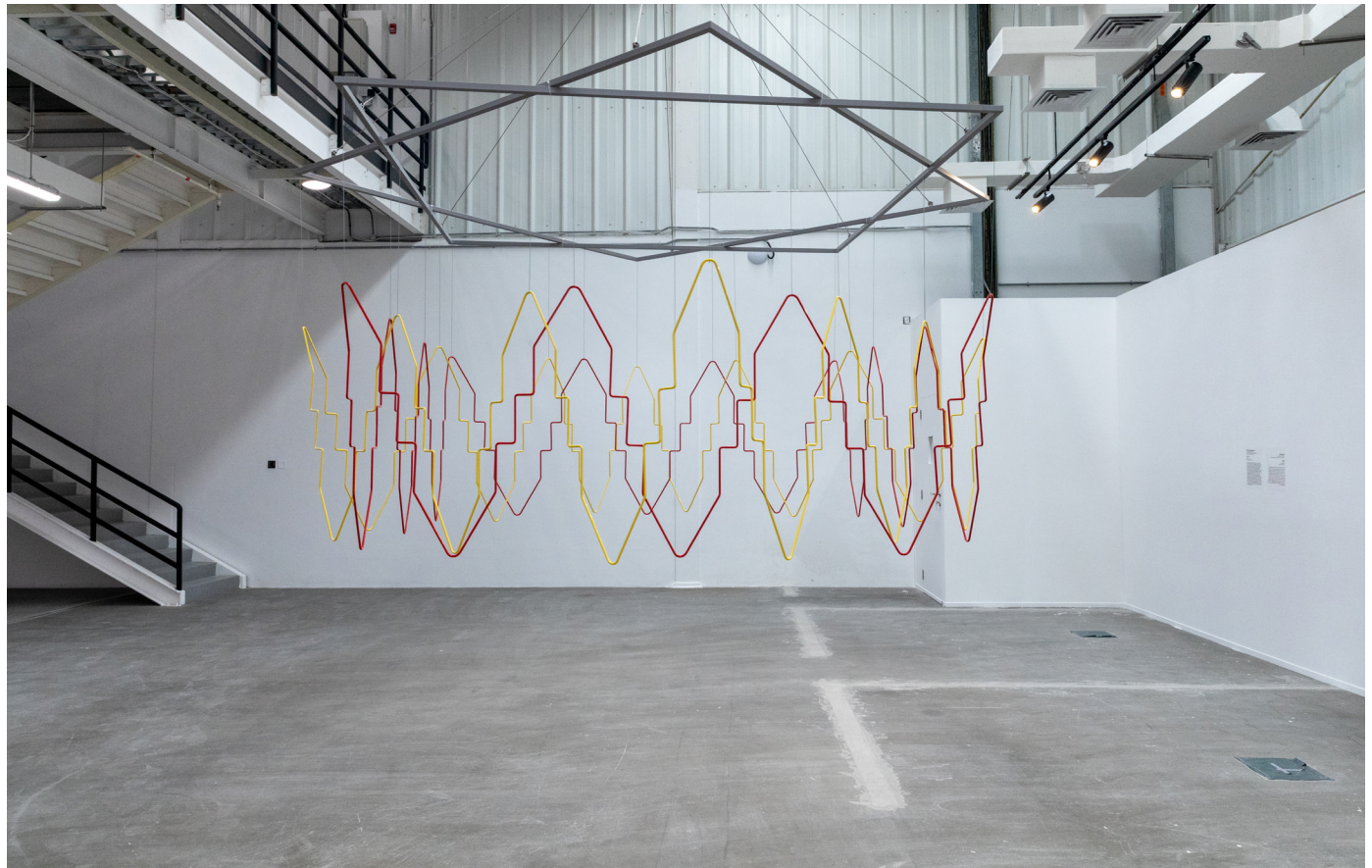
곡예사들 Acrobats

2019, 도색된 금속, 113×300×500cm

선들의 율동, 이슬람 기하학의 현대적 해석, 아랍 문화에 기반한 안달루시아 지역의 디자인적 디테일, 실내의 구조적 분할, 대화로의 초대, 그리고 우주 속 개인의 자리를 고찰하라는 호소까지, <곡예사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망라한다.

작품의 컨셉은 알람브라 궁전 및 모로코 건축에 사용된 모자이크 타일장식에 기반을 둔다. 그렇기에 벽면 반쪽은 생동감 넘치는 기하학적 모티프의 젤리지 타일로, 나머지 반쪽은 흰색 바탕의 스투코 장식으로 마감된다. 분할된 이 두 면 사이에 띠모양의 프리즈 장식은 관객이 전시공간과 주변을 살펴보도록 시선을 이끈다.

이것이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관객이 작품 주위를 걸으며 공간을 가늠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도록 유도한다. 마치 대답한 곡예사가 줄타기를 하듯 관객은 아주 신중히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바로 이 대답하고 위협을 감수하는 행위가 <곡예사들>의 핵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전통과 문화에 소홀해지거나 무관심해진다면, 그것들을 잃는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 Aisha Khalid

## 아이샤 칼리드

동시대 시각예술가, 파키스탄

설치작품의 전체구조와 형태, 이슬람 기하학적 구성과 장식적 패턴은 메카의 카바 신전과 키스와(카바 신전을 가리는 덮개)를 연상시킨다. 녹색 태피스트리는 메디나에 위치한 예언자의 모스크의 녹색 돔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작품은 또한 자연, 아름다움, 평온함을 기리는 싱그러운 정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드리워진 태피스트리들이 작품의 네 면을 이룬다.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면들이 맞닿는 경계에 생긴 좁은 틈 사이로 겹겹이 보이는 내부의 공간은 작품을 정육면체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황금빛 수를 놓은 듯 작품 전체를 뒤덮은 패턴은 도금된 채봉핀 수천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통 페르시아 카페트의 디자인을 재현한 것이다. 각 태피스트리는 선화하며 날아가는 새들로 장식되어 있어 마치 새들이 작품 주위를 순행하는 듯하다. 태피스트리마다 장식된 새들의 수와 움직임은 모두 다르다. 카바 신전 주위를 비행하는 새들처럼 이들도 작품 주위를 날고 있다. 회화작품들 역시 설치작품과 동일한 색채로 구성되었으며, 이슬람세밀화의 전통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설치작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사랑의 정원은 무한히 푸르다〉가 지닌 영적인 힘은 실제 제작과정에 기인한다. 작품 제목은 이슬람 신비주의 성자이자 시인인 잘랄루딘 루미(Jalaluddin Rumi)의 시의 구절이며, 창작에 수반된 고통의 고행, 반복, 명상의 과정이라는 영적인 행위 자체 또한 작품의 영성에 기여하고 있다.

### 태피스트리

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짜 넣은 직물

사랑의 정원은 무한히 푸르다

The Garden of Love is Green Without Limit

2019, 다섯 점의 회화: 판지에 구아슈와 금박,  
50.8×50.8cm, 60.96×60.96cm / 네 면으로 된 설치물:  
금속 구조물, 패브릭(벨벳), 스틸 핀, 24캐럿 금도금 스틸 핀,  
213.36×182.88 cm (각 면)



# Aljoud Lootah

## 알주드 루타

다영역(Multidisciplinary) 예술가, 아랍에미리트

팔락 Falak

2019, 낙타가죽, 구리 못, 금속 구조물, 220×210cm

〈팔락〉은 코란 알 안비아(예언자들)장의 한 구절에서 출발한다. “그분께서 밤과 낮,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니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궤도에 따라 운행하노라.” 우주를 뜻하는 제목의 〈팔락〉은 이슬람교 및 이슬람 세계에서 역사적, 현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성좌의 영향과 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복적인 육각형들이 마치 성좌의 궤도를 맴돌며 순행하듯 작품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인상을 자아낸다. 이 복잡한 패턴은 오히려 작품 자체가 지닌 단일하고 반복적인 기하학적 디자인의 미니멀리즘을 강조해준다.

이슬람 마쉬라비야 양식의 심미적 특징을 공유하며 공간을 분할하는 이 작품은 겹쳐 놓은 육각형들이 생성해낸 여러 개의 구멍들을 통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자신의 출신지에 걸맞게 〈팔락〉에 낙타가죽을 사용하였으며, 작품을 변화와 선택에 따라 재구성하고 개인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작품이 대표하는 지역 및 예술 장르의 특성과 일맥상통한다.



# Stanley Siu

## 스탠리 시우

건축 예술가, 홍콩

변환 Conversion

2019, 금속 프레임, 서예붓, 2.8x2x2m

〈변환〉의 핵심 전제는 예술을 통해 문화를 결합하고 다양한 사람과 사회의 통합이다. 작가는 이슬람과 중국 서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도구이자 재료인 붓으로 이슬람의 기하학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색채조합은 백 년 전 중국 전통회화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었다. 다채로운 기하학 디자인들을 실험한 결과로 얻어진 작품의 구성은 이슬람과 중국 문화 모두에 대한 헌정으로 여겨진다.

작가는 벽의 제한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여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건축적 구조에 집중했다. 관객이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와, 고개를 들어 디자인을 바라보게끔 유도한다. 위를 바라보는 그 단순한 행위는 전세계 모든 종교에서 행해지는 기도를 연상시킨다.



# Fatima Uzdenova

## 파티마 우즈데노바

개념(Conceptual) 미술가, 아랍에미리트/영국/북 코카서스

인생은 두 번뿐 You Only Live Twice

2019, 혼합 매체 설치, 크기 가변

작가는 죽음과 슬픔이라는 보편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인간적 경험과 씨름하면서 영적 지형과 정원의 낙원을 탐구하게 되었다. 탐구 과정 중 바르자크라는 죽음과 부활 사이 영혼이 머무르는 공간에 대해 발견하게 되었다. 이슬람 종말론에서 육체적 세계와 천상의 세계 사이의 장벽, 즉 중간 세계인 바르자크에 기반하여 작가는 우연한 계기에 모호한 형상을 창조해냈으며, 그것을 복제한 조각품이 이 작품에 포함되어 있다.

작가는 이후 종교적 개념의 바르자크를 호텔, 국경, 국가, 자연, 공항, 디지털 시대, 인간과 로봇 등 현대적, 비종교적 의미의 다양한 중간 세계로 확장시켰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관객에게 제공한다.

